

전국 보건소 간호인력의 분포와 보건사업 제공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 ①

김명순 외

I. 서 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사회·경제적인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 의료 봉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정부의 지상 과제가 되고 있다.^{1) 2)}

즉, 모든 국민에게 정치·경제·사회적 구별없이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 의료 서비스, 자원 및 건강 상태 등의 균등한 배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³⁾

그러나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조직 및 활용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하는데, 특히 공공부문에서 주민과의 1차적 접촉에 의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조직인 보건소의 조직 및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인력 관리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2) 4) 5) 6)}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현재 전국에 225개 소의 보건소와 1303개소의 보건지소 및 2,000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는 '86년 현재 취업중인 총 보건의료인력 101,639명 중 4.3%에 해당하는 4,38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 중 간호직 인력(간호원, 보조원, 기타 요원)

이 3,104명으로 전체 보건(지)소인력의 70.8%에 해당되므로써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⁸⁾

그러나 이들은 대개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 관리 사업과 같은 특수 보건 사업부문별로 정원이 고정된 채, 기능 위주로 배치되어 있어 제한된 대상자에게 단지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4) 5)} 다행히 1985년 7월 1일부터 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가족을 단위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일 목적의 보건 사업을 다목적화한 통합 보건 요원 사업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간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구·시 단위 보건소는 단일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보건소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가 일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⁴⁾

따라서 앞으로 전국민에게 균등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가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 조직 중 일선 활동 조직인 보건(지) 소가 특정 사업만을 강조하기 보다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를 수혜자의 측면에서 건강 평가를 통해 파악된 건강 요구 중심의, 포괄적인 보건 의료 사업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가장 적절한 인력 자원인 간호 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해 진다고 보겠다.⁸⁾ 김⁴⁾도 간호 인력은 오늘날 보건 의료 체계 운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성

26 보건간호편

공적인 보건 의료 인력 관리의 지름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들 보건 간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간호 인력의 수급 계획과, 이들의 생산성에 관한 제고와 아울러 바람직한 역할 모형의 개발 등 많은 난제가 누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차제에 지역간호 분과학회 보건소 연구 team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기초 작업으로 현 시점에서의 보건소 간호 인력 현황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보건 간호 인력의 수요 추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86년 현재 보건소 간호 인력의 지역별, 사업부문별 분포 현황을 파악한다.

2. '85년말 현재 보건소 간호 인력의 담당 인구수 및 가구수를 파악한다.

3. '86년말 현재 지역별, 사업부문별 보건소 간호 인력의 1인당 서비스 제공수를 파악한다.

4. '85년말 현재 사업부문별 사업 대상자수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율을 파악한다.

2. 용어의 정의

1) 보건소 간호 인력 : '86년 현재 전국 225개 보건소에 근무중인, 간호사·간호조무사·기타 요원으로 구분되는 간호 관계인력을 말한다.

2) 사업부문별 보건소 간호 인력 : 결핵관리, 가족계획, 모자보건진료, 나판리, 기타 관리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3) 가족계획 대상자 : 가족계획 대상자로는 유배우가임여성과 그 배우자가 포함되나, 본 조사에서는 15세~49세의 유배우 여성만으로 규정하였다.

4) 모성보건 대상자 : 15세~49세의 유배우 가임여성과 0세~6세의 미취학 남·여아동을 말

한다.

5) 결핵관리 대상자 : 결핵관리 대상자란 결핵 감염이 전 연령에 걸쳐 가능 하므로 전 인구가 사업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좀 더 실제적인 대상자를 산출하기 위하여 전인구 유병자수 (= 해당연도 5세이상 인구 결핵 유병율 × $\frac{\text{전인구총수}}{\text{전인구주5세 이상 인구수}}$)

를 구하여 그 대상자로 규정하였다.

6) 가족계획 서비스 제공수 : 해당연도 보건사회 통계연보내용 중 '가족계획 사업 실적' 자료 중에서 연말 현재 정판, 난관수술을 받은자, 자궁내 장치술, 콘돔과 먹는 피임약의 월평균 공급인원수의 합으로 하였다.

7)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수 : 해당연도 보건사회 통계연보내용 중 '모자보건 사업 실적' 자료 중 보건소에서 1회이상 등록 관리된 수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수의 연말 현재수로 규정하였다.

8) 결핵관리 서비스 제공수 : 보건소의 결핵관리 내용은 객담수집 검사 및 의뢰, X-ray검진 및 의뢰, 환자발견, 투약 및 판리, 예방접종, 기타 업무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수를 산출할 수 있겠으나, 본 조사에서는 충복되는 내용을 피하여, 보사통계연보의 '결핵환자 등록 상황' 자료중 양성·음성자와 요판찰자수를 합한 연말 현재 수로 규정하였다.

II. 조사 자료 및 방법

1. 조사 자료 및 방법

기준자료로서, ① 보건사회 통계연보, ② 각 시·도별 통계연보, ③ 198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중 제1권 전수조사, 각 시·도별 보고서, ④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속보(2% 표본 추출 집계 결과), ⑤ 각 시·도별 "보건소·지소·보건진료소 현황" 보고서('85년, '86년

4 / 4 분기용)를 이용하여 필요한 내용별로 수집
· 분석 하였다.

2. 조사의 제한점

1)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간호 인력 · 현황이 생략되었으며, 기존 통계자료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의 기록 및 보고상의 오차를 배제하지 못하였다.

2) 간호 인력의 자격별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여 업무내용의 질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III. 조사 결과 및 고안

1. '86년말 현재 보건소 간호 인력의 지역별, 사업부문별 분포 현황

'86년말 현재 보건소 간호 인력의 지역별, 사업부문별 분포 현황에서는 우선 각 지역별로 '86년말 현재 보건소에 재직중인 간호인력(간호사 · 간호조무사 · 기타 요원)의 수 및 지역간 비율, 그리고 정원 : 현원간의 비율(이하 충원율), 각 사업부문별 간호 인력의 충원율 및 간호사 : 간호조무사 + 기타요원(이하 기타요원)의 비율을 알아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는 자료를 얻기는 어려웠고, 우선 보건사회 통계연보(No. 33, 1987년, PP7)의 '보건소 인력현황' 편에서 간호직을 진료실, 결핵관리, 모자보건, 가족계획, 나

판리, 기타 요원으로만 구분해 놓고 있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기타 요원의 구분이 어렵고 그 비율 또한 알 수 없어서, 각 시 · 도 보건 사회에서 보사부로 보고되는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현황' 보고서 중 '86년 4 / 4 분기 보고서를 이용하였는데, 이에는 각 사업부문별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요원의 구분이 되어 있었으며, 정원과 현원의 비율도 명시되어 있어 본조사 내용에 적합한 자료가 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소 간호 인력의 지역별, 사업부문별 분포 현황 :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6년말 현재 전국 225개 보건소에 근무중인 간호 인력은 총 3,065명 이었으며, 이를 자격별로 보면 간호사 2,199명, 기타 요원 866명으로 간호사 : 기타요원간의 비가 약 3:1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481명으로 인력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남(363명), 경북(335명)의 순이었으며, 제주 지역이 41명으로 가장 적었다.
(그림 1-1 참조)

한편 사업부문별로는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계획 사업부문에 789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전체의 26%로써 가장 많았으며, 모자보건 24%(726명), 진료실 21%(640명), 결핵관리 14%(436명)의 순이었고, 나판리 부문이 103명(3%)으로 가장 적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같은 분포 현황은 지역별 보건소의 수나, 각 사업부문별 정원의 충원율,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하며 이해되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H 1 - 1. DISTRIBUTION OF PHPs IN HEALTH CENTERS BY SERVICE & REGIONAL AREA

	TB CONTROL		FAMIL PLAN		M C H		T R		LEPROS CONTROL		OTHERS		TOTAL	
	RN AN ER AL %	OTH TOT %	RN AN ER AL %	OTH TOT %	RN AN ER AL %	OTH TOT %	RN AN ER AL %	OTH TOT %	RN AN ER AL %	OTH TOT %	RN AN ER AL %	OTH TOT %	RN AN ER AL %	TOTAL %
KOREA	214 169 53	14%	600 165 24	789 100%	543 158 25	726 100%	567 63 10	640 100%	16 7 80	103 100%	259 59 53	371 100%	2,199 621 245	3,065 100%
SEOUL	42 6 0	10%	119 0 0	179 37%	88 0 0	88 18%	82 0 0	82 17%	4 0 0	4 4%	80 0 0	80 17%	475 6 0	481 100%
pusan	27 1 1	29%	56 7 0	63 37%	5 0 0	5 1%	20 1 0	21 3%	2 1 0	3 3%	4 0 0	4 1%	114 10 1	125 4%
DAEGU	18 4 0	22%	24 20 1	45 43%	11 0 0	11 10%	26 0 0	26 25%	0 0 0	0 0%	0 0 0	0 1%	79 25 1	105 3%
INCHEON	6 2 3	11	3 6 6	15 29%	4 0 0	4 1%	6 1 0	7 1%	0 0 1	1 1%	10 2 2	14 4%	32 11 9	52 2%
KWANGJU	7 3 0	10	2 7 18	2 37%	9 1 0	10 16%	9 0 0	9 1%	0 0 0	0 0%	5 0 0	5 1%	37 22 3	62 2%
KYUNGGI	23 15 1	39	9 45 10	0 55 19%	7 59 26	3 88 12%	54 7 2	63 10%	1 2 2	5 5%	31 12 2	45 12%	213 72 10	295 10%
KANGWON	7 18 7	32	7 31 15	1 47 6%	57 62	21 46%	79 11%	61 16%	0 0 3	3 1%	3 1 2	6 3%	159 64 15	238 8%
CHUNGBUK	6 13 1	20	11 20 5	9 38 22%	42 56	33 42%	79 11%	17 16%	1 1 0	1 1%	10 9 0	10 1%	86 74 16	176 6%
CHUNGnam	15 16 7	38	9 46 12	9 4 46%	62 38	2 6	46 33%	4 9 17%	0 0 15	15 15%	45 8 15	68 18%	189 46 43	278 9%
JUNBUK	10 17 5	32	7 38 2	5 45 6%	57 62	29 45%	90 11%	35 12%	1 1 47	7 7%	0 1 8	9 4%	140 70 31	241 8%
JUNNAM	9 37 13	59	14 51 28	1 80 10%	63 18	9 90	12 12%	70 10	2 82 3	13 3%	0 17 20	19 1%	218 94 51	363 12%
KYUNGBUK	17 19 7	43	10 46 13	5 64 8%	56 56	19 11%	77 11%	81 11%	2 93 15%	15 3%	1 12 16	14 16%	222 76 37	335 11%
KYUNGnam	26 16 6	48	11 46 16	1 63 8%	45 46	2 0	47 6%	56 56	0 0 56	9 5%	3 1 12 16	16 16%	210 39 24	273 9%
CHEJU	1 2 2	5	1 5 1	0 6 1%	9 3	0 12	2%	5 0	1 6 1%	1 1%	0 0 1	1 2%	27%	100% 25 12 4 41 1%

※ PHPs : Public Health Person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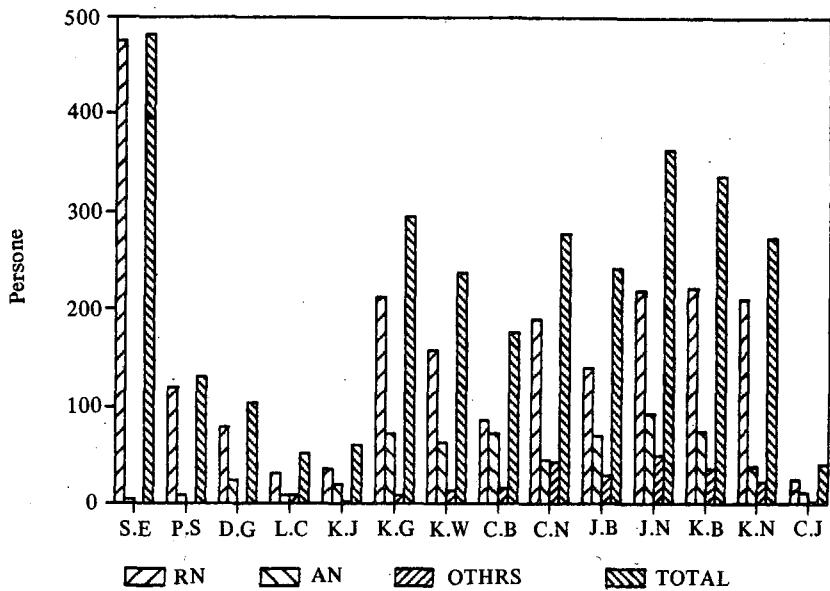


그림 1-1 Distribution of PHPs in Health Cen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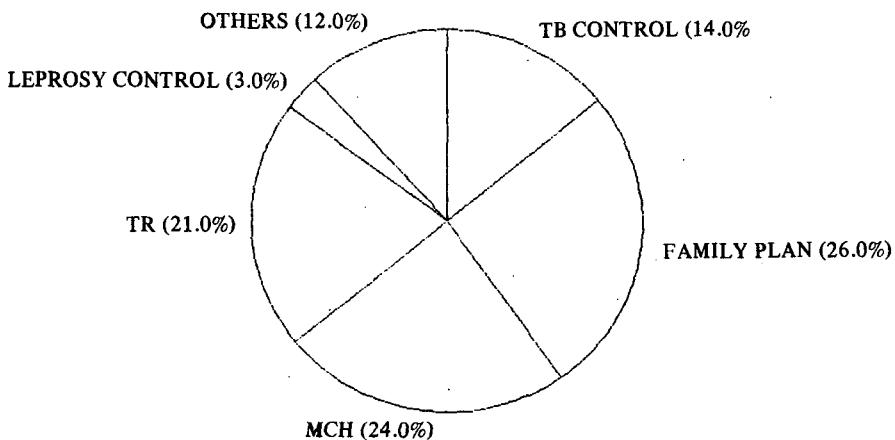


그림 1-2 The Rate of PHPs in Health Centers by service area

2) 보건소 간호 인력의 지역별·사업부문별 총 원율: 이들의 총원율은 전국적으로 97%에 이르고 있고, 부산, 충북, 전북 지역등이 100% 수준에 있으며 경북 지역이 91%로 가장 낮은 총원율을 보였다 (표 1-2, 그림 1-3 참조) 한편 각 사업부문별 총원율에서는 표 1-2, 그림 1-4

에서와 같이 나관리, 기타 사업부문이 100%를 상회했으며, 모자보건부문이 93%로 가장 낮았는데, 정원보다 현원의 수가 많은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 원인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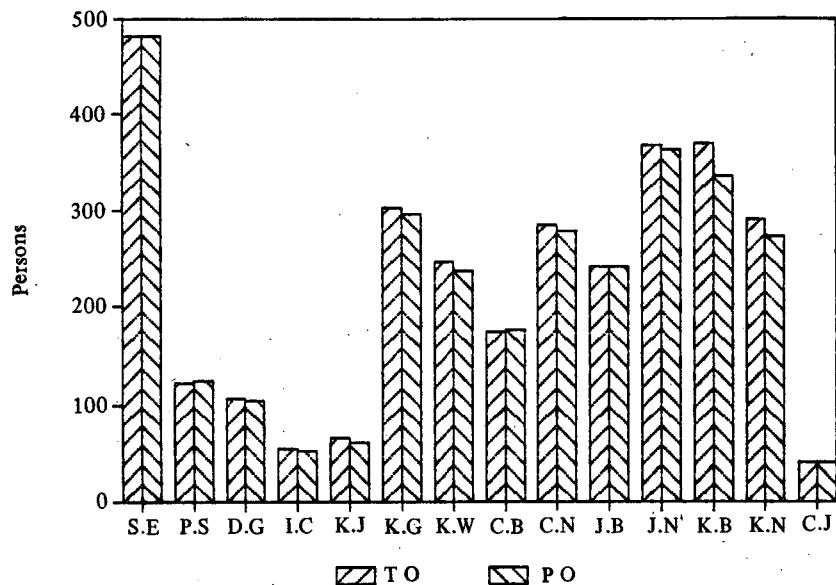


그림 1-3 No. of PO/TO of PHPS in Health Centers by regional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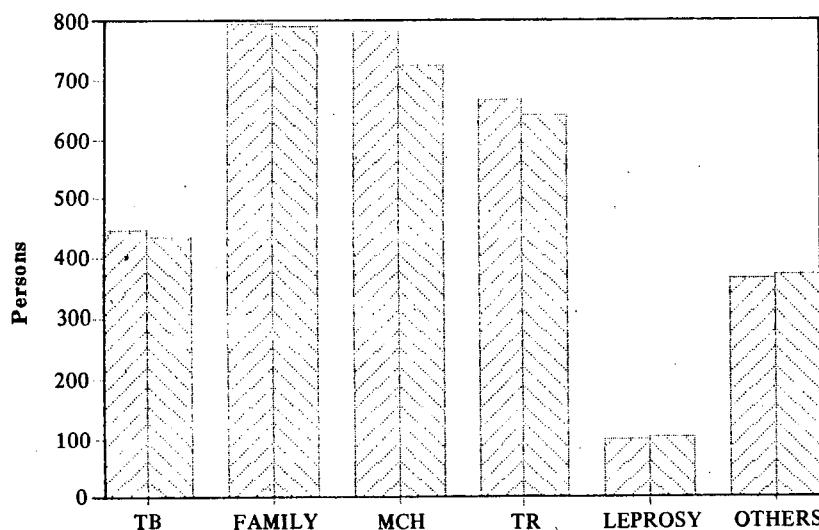


그림 1-4 No. of PO/TO of PHPS in Health centers by service area

결핵관리 부문에서는 전국적으로 98 %의 충원율을 보였으며, 대구, 강원, 충북, 지역이 100 % 수준이며, 충남, 전남, 전북, 경북, 제주, 지역은 100 %를 상회했다. 전국적으로 99 % 충원율을 보인 가족계획 사업부문에서는 대구, 전남, 경남, 북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100 %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보건 사업부문에서는 전국적인 충원율이 93 %로서 여타 사업부문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지역적으로는 대구가 100 %를 상회하고 광주, 제주지역이 100 %였으며, 인천이 67 %로 가장 낮았다. 모자보건 사업부문의 능동적인 확대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³⁾ 모자보건 사업부문의 요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 볼 수 있겠다.

진료업무에서는 전국적으로 96 %의 충원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광주, 인천, 지역이 각각 75 % 78 %로 현저히 낮았으며, 경북지역(86 %)을 제외한 전 지역이 90 %를 상회하고 있었다.

한편 나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경북지역(94 %)을 제외한 전 지역이 100 %를 상회하고 있었다.

기타 사업분야에 있어서도 전체 101 %의 충원율을 보였으며, 충남(94 %), 전북(95 %), 전남(94 %), 경남(96 %), 제주(92 %),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100 %를 상회했다. (표 1-2 참조).

3) 보건소 간호 인력의 자격별 분포비: 간호인력의 자격구분은 간호사(RN)와, '81년 보건소 간호인력 정규직화 후 보건직으로 환직된 간호조무사(AN), 그리고 공채 보건직 요원으로 구분하여, 간호사: 기타요원(간호조무사+공채요원)의 비를 지역별, 사업부문별로 살펴보았다.

전국적으로 간호사: 기타요원의 비는 약 3:1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전체 481 명 중 6 명만이 기타 요원으로 거의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으며, 부산지역은 간호사: 기타요원의 비가 10:1로 높았고, 충북지역이 1:1의 비로

써 가장 낮았으며, 경남지역이 3.3:1, 기타 대부분의 지역이 2:1의 비를 나타냈다.

사업부문별로는 진료업무분야가 7.8:1로 간호사: 기타요원간의 비가 가장 높았고, 나관리부문에서 0.2:1의 비로 간호사에 비해 기타요원의 수가 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를 다시 사업부문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그림 1-5 참조)

(1) 결핵 관리부문

전체 436 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자격별로는 간호사가 214 명, 간호조무사 및 기타요원이 각 169 명, 53 명으로, 간호사: 기타요원의 비가 1:1 정도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이 14:1의 비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7:1, 대구 5:1의 순이었고 강원(0.3:1), 충북(0.4:1), 충남(0.7:1), 전북(0.5:1), 전남(0.2:1), 경북(0.7:1), 제주(0.3:1) 지역등은 간호사 보다 기타요원의 수가 훨씬 많아 결핵관리업무의 대부분이 기타요원에 의해 수행되어질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가족계획사업

가족계획 사업부문에는 총 789 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자격별로는 간호사 600 명, 기타요원이 189 명으로 간호사: 기타요원의 비가 약 3:1 이 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179 명 전원 간호사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외 부산지역 8:1, 경기 4.5:1, 전북 5.4:1, 제주 5:1의 비였으며 인천(0.7:1), 광주(0.4:1) 등은 간호사보다 기타 요원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 사업부문에는 총 726 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자격별로는 간호사 544 명, 기타요원이 183 명으로 간호사: 기타요원의 비가 약 3

H 1-2 RATE OF PO/TO BY SERVICE & REGIONAL AREA

	T B				Family Plan				M C H				T R				LBPROSY				Others				Total	
	TO	PO	Rate	TO	PO	Rate	TO	PO	Rate	TO	PO	Rate	TO	PO	Rate	TO	PO	Rate	TO	PO	Rate	TO	PO	Rate	TO	PO
KOREA	446	436	98%	789	789	99%	782	93%	665	640	96%	98	103	105%	366	371	101%	3151	3065	97%						
SEOUL	53	48	91%	178	179	101%	90	88	98%	82	82	100%	0	4	RRR	80	80	100%	483	383	100%					
PUSAN	33	29	88%	56	63	113%	6	5	83%	23	21	91%	2	3	150%	2	4	290%	122	125	102%					
DAEGU	22	22	100%	48	45	93%	9	11	122%	26	26	100%	0	0	ERR	1	1	100%	106	105	99%					
INCHEON	12	11	92%	15	15	100%	7	4	67%	9	7	78%	1	1	100%	13	14	100%	56	52	93%					
KWANGJU	11	10	91%	27	27	100%	10	10	100%	12	9	75%	0	0	ERR	6	6	100%	66	62	94%					
HYUNGGI	44	39	89%	52	55	106%	93	88	95%	64	63	98%	5	5	100%	45	45	100%	303	295	97%					
KANGWON	32	32	100%	47	47	100%	87	79	91%	71	71	100%	3	3	100%	6	6	100%	246	238	97%					
CHUNGBUK	20	20	100%	38	38	100%	89	79	99%	26	28	100%	10	10	100%	1	1	100%	175	176	101%					
CHUNGNAM	37	38	103%	72	62	100%	49	46	94%	49	49	100%	15	15	100%	72	68	94%	284	278	98%					
JUNBUK	30	32	107%	41	45	110%	99	90	91%	44	47	107%	8	9	113%	19	18	95%	241	241	100%					
JUNNAM	57	59	104/	82	80	98%	91	90	99%	84	82	98%	20	20	100%	34	32	94%	268	363	99%					
KYUNGBUK	41	43	105%	76	64	85%	99	75	78%	108	93	86/	17	16	94%	30	42	140%	370	235	91%					
KYUNGNAM	50	48	96%	67	61	94%	61	47	92%	61	56	92%	16	16	100%	45	45	95/	290	273	94%					
CHEJU	4	5	125%	6	6	100%	12	12	100%	6	6	100%	1	1	100%	12	11	92%	41	41	100%					

表 1-3. RATIO OF RN / OTHER PHPs IN EACH SERVICES & REGIONAL AREA

	TB CONTROL	FAMILY PLAN	MCH	TR	LEPROSY CONTROL	OTHERS	TOTAL
	RN AN OTH RAT RN AN ER IO	RN AN OTH RAT RN AN ER IO	RN AN OTH RAT RN AN ER IO	RN AN OTH RAT RN AN ER IO	RN AN OTH RAT RN AN ER IO	RN AN OTH RAT RN AN ER IO	RN AN OTH RAT RN AN ER IO
KOREA	214 169 53 1.0 600 165 24 3.2 543 158 25 3.0	567 63 10 7.8	16 7 80 0.2	239 59 53 2.3	2199 621 245 2.5		
SBOUL	42 6 0 7.0 179 0 0 ERR	88 0 0 ERR	82 0 0 ERR	4 0 0 ERR	80 0 0 ERR	475 6 0 79.2	
PUSAN	27 1 1 13.5 56 7 0 8.0 5 0 0 ERR	20 1 0 20.0	2 1 0 2.0	4 0 0 ERR	0 1 0 0.0	114 10 1 10.4	
DABGU	18 4 0 4.5 24 20 1 1.1 11 0 0 ERR	26 0 0 ERR	0 0 0 ERR	0 1 0 0.0	79 25 1 3.0		
INCHEON	6 2 3 1.2 6 6 3 0.7 4 0 0 ERR	6 1 0 6.0	0 0 1 0.0	10 2 2 2.5	32 11 9 1.6		
KWANGJU	7 3 0 2.3 7 18 2 0.4 9 1 0 9.0 9 0 0 ERR	6 1 0 6.0	0 0 1 0.0	5 0 1 5.0	37 22 3 1.5		
KYUNGGI	23 15 1 1.4 45 10 0 4.5 59 26 3 2.0 54 7 2 6.0	1 2 2 0.3	31 12 2 2.2	213 72 10 2.6			
KANGWON	7 18 7 0.3 31 15 1 1.9 57 21 1 2.6 61 9 1 6.1	0 0 3 0.0	3 1 2 1.0	159 64 15 2.0			
CHUNGBUK	6 13 1 0.4 20 17 1 1.1 42 33 4 1.1 17 10 1 1.5	0 1 9 0.0	1 0 0 ERR	86 74 16 1.0			
CHUNGNAM	15 16 7 0.7 46 12 4 2.9 38 6 2 4.8 45 4 0 11.3	0 0 15 0.0	45 8 15 2.0	189 46 43 2.1			
JUNBUK	10 17 5 0.5 38 2 5 5.4 57 29 4 1.7 35 11 1 2.9	0 1 8 0.0	0 10 8 0.0	140 70 31 1.4			
JUNNAM	9 37 13 0.2 51 28 1 1.8 63 18 9 2.3 70 10 2 5.8	3 0 17 0.2	22 1 9 2.2	218 94 51 1.5			
KYUNGBUK	17 19 7 0.7 46 13 5 2.6 56 19 2 2.7 81 10 2 6.8	3 1 12 0.2	19 14 9 0.8	222 76 37 2.0			
KYUNGNAM	26 16 6 1.2 46 16 1 2.7 45 2 0 22.5 56 0 0 ERR	3 1 12 0.2	34 4 5 3.8	210 39 24 3.3			
CHEJU	1 2 2 0.3 5 1 0 5.0 9 3 0 3.0 5 0 1 5.0	0 0 1 0.0	5 6 0 0.8	25 12 4 1.6			

34 보건간호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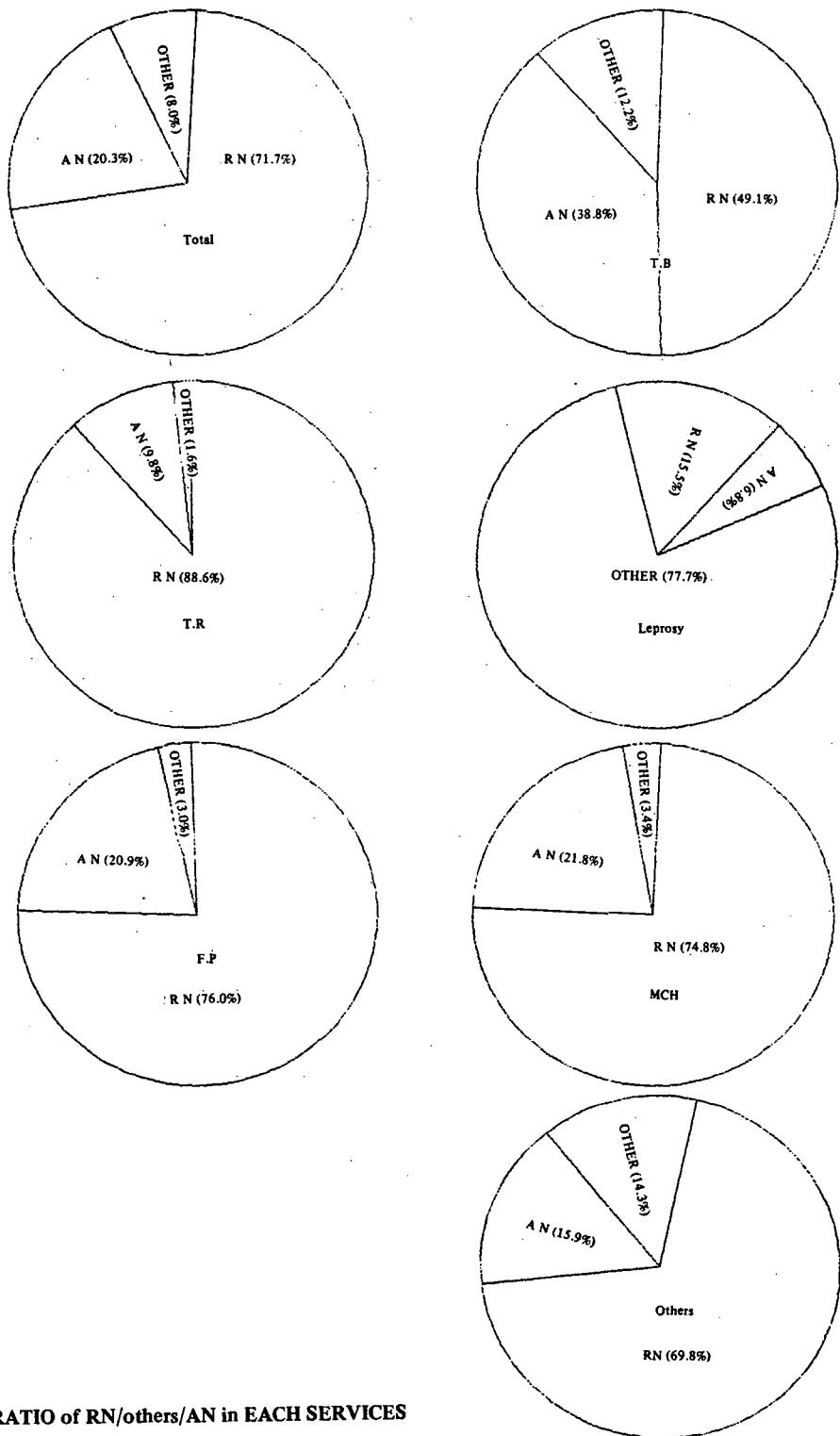


그림 1-5 RATIO of RN/others/AN in EACH SERVICES

: 1 가량 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지역이 전원 간호사들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그외 전남지역이 22.5 : 1의 비로써 가장 높았고, 충북지역은 1 : 1의 비로써 간호사 : 기타요원의 수가 거의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4) 진료업무

진료업무분야에는 총 640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간호사 : 기타요원의 비가 약 8 : 1로써 다른 사업부문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82명), 대구(26명), 광주(9명), 경남지역(56명)이 모두 간호사들로만 배치되어 있으며, 부산지역이 20 : 1, 충남지역이 11.3 : 1의 비를 나타냈으며 기타 지역중 충북지역은 다른 사업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 기타요원의 비가 1.5 : 1로 가장 낮았다.

(5) 나관리부문

나관리부문에는 총 103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간호사 : 기타요원의 비는 다른 사업부문과는 달리 기타요원이 간호사의 5배나 많이 배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업무가 기타요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6) 기타 사업부문

기타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분석되지 못했으나, 총 371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총 인력의 12%에 해당되었으며, 간호사 : 기타요원의 비는 2.3 : 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80명), 부산(4명), 충북(1명), 지역은 전원 간호사들로 배치되었고, 대구(1명), 전북(18명), 지역은 전원 기타요원들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전국적으로 간호사 : 기타요원의 분포비가 약 3 : 1 이었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많았으며, 사업부문별로도 국가 정책 사업인 가족계획, 결핵관리, 모자보건 사업부문 보다 진료업무, 기타 업무 분야에서 간호사의 비가 훨씬 높아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 간

호 인력의 적정수의 확보 및 배치는 국민 건강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간호 인력의 적정수의 확보 및 간호사 : 기타요원간의 분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업무 특성이나 대상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도 및 기타 제반 특성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표 1-3 참조).

2. 보건소 간호 인력의 담당 인구 수 및 가구 수

보건소 간호 인력의 담당 인구수 및 가구수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그리고 연도별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자, '80년, '85년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자료를 이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1980년 당시 인구 10만당 보건 간호사 수가 약 3명이던 것이 '85년에는 5명으로 증가 되었으며, 기타요원의 경우 '80년에 인구 10만당 4명이던 것이 '85년에는 약 2명으로 반감 되었다.

한편 담당 가구수를 1만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간호사 수가 '80년에는 1.3명이던 것이 '85년에는 약 2명으로 증가 되었으며, 기타요원의 수는 '80년에 2명이던 것이 '85년에 1명으로 감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구 10만당 간호 인력수가 '80년이나 '85년 모두 총 7명으로 동일한 수준에 있으며, 다만 인력간 분포비에 있어 간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기타요원의 수가 감소된 결과를 보였다.

바람직한 보건 간호사 : 인구수의 비를 1:5000으로 볼 때, 우리는 아직도 보건 간호 인력의 과부족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으며 인력간 분포비에 있어서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바람직한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간호 인력의 비율이 점차 높아져야 될 것이다.

한편 지역별로는 '80년에 서울, 강원, 충북지

表 2. NO. OF PHP's per 100,000 POPULATIONS & 10,000 HOUSEHOLDS

	1 9 8 0						1 9 8 5					
	RN	AN	OTH	ER	POPUL-	RAT	RN	RAT	HOUSE-	RN	RAT	RN
					ATION	IO	OTH	IO	HOLDS	IO	OTH	IO
KOREA	1034	1389	37,406	815	2.76	3.71	7,979	718	1.30	1.74	1,839	556
SEOUL	290	176	8,350	616	3.47	2.11	1,842	239	1.57	0.96	393	9
PUSAN	47	86	3,156	931	1.49	2.72	690	126	0.68	1.25	112	8
DAEGU											75	25
INCHEON											31	0
KYUNGGI	92	178	4,930	335	1.87	3.61	1,083	000	0.85	1.64	181	64
KANGWON	63	101	1,790	226	3.52	5.64	375	108	1.68	2.69	123	66
CHUNGBUK	50	71	1,423	381	3.51	4.99	291	000	1.72	2.44	62	62
CHUNGNAM	83	120	2,954	662	2.81	4.06	584	537	1.42	2.05	155	47
JUNBUK	68	96	2,286	720	2.97	4.20	451	763	1.51	2.13	134	53
JUNNAM	110	175	3,778	777	2.91	4.63	756	000	1.46	2.31	203	97
KYUNGBUK	125	215	4,952	012	2.52	4.34	1,080	146	1.16	1.99	176	63
KYUNGNAM	98	164	3,320	546	2.95	4.94	711	276	1.38	2.31	163	48
CHEJU	8	17	462	609	1.73	3.67	105	523	0.76	1.61	31	14

역 등이 인구 10만당 간호사 4명 풀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지역이 1명 풀로 가장 적었고, 기타 요원 수는 강원지역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기타 지역은 대부분 4~5명 풀이었다. 가구수 1만 가구당 간호사 수는 서울, 강원, 충북, 전북 지역이 2명 풀이었으며, 기타 지역은 대부분 1명 정도였다. 기타 요원의 수는 강원지역이 약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명풀로 가장 적었다.

'85년에는 강원지역이 간호원 7명 / 인구 10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시가 2명 / 인구 10만으로 가장 적었다. 기타요원의 수는 충북지역이 5명 / 인구 1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0.1명 / 인구 10만명으로 가장 적었다. 가구당 간호원 수도 강원지역이 3명 / 1만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지역이 1명 / 1만가구로 제일 적었고, 기타요원의 수는 충북 지역이 2명 / 1만가구 풀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0.1명 / 1만가구로 가장 적었다.

대체로 '85년에는 각 지역별로 모두 인구 10만명당, 그리고 1만 가구당 간호사의 수가 '80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되었으며, 기타요원의 수는 각각 반감된 추세를 볼 수 있었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강원지역은 간호사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충북지역은 기타요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별, 사업부분별 보건 간호 인력 1인당 서비스 제공수

보건 간호 인력 1인당, 결핵관리, 가족계획, 모자보건 분야의 서비스 제공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86년, '87년도 보건사회 통계 연보의 '가족계획 사업 실적', '결핵환자 보건소 등록 상황', '모자보건 사업 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월간, 일일 평균 제공수를 구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그러나 보건 간호 인력간의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못해 인력의 자격별 구분에 따른 서비스 제공량은 측정할 수 없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참조).

1) 결핵 관리 부문: '85년도의 전국적인 연평균 서비스 제공수는 245건 / 1인 이었으며 월 평균 20.5건 / 1인, 일 평균 0.8건 / 1인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85건 / 1인 / 년, 32.1건 / 1인 / 월, 1.3건 / 1인 / 일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경남지역이 204건 / 1인 / 년, 17건 / 1인 / 월, 0.7건 / 1인 / 일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86년도의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수는 235건 / 1인 / 년, 19.6건 / 1인 / 월, 0.8건 / 1인 / 일로써 '85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31건 / 1인 / 년, 177.6건 / 1인 / 월, 7.1건 / 1인 / 월으로써 가장 많았는데, '85년에 비해 약 7배 정도의 증가 양상을 보였으며, 제주도가 2,324건 / 1인 / 년, 193.6건 / 1인 / 년, 7.7건 / 1인 / 일으로써 '85년에 비해 현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림 3-1 참조).

2) 가족 계획 부문: '85년도의 전국 평균 서비스 제공수는 1,282건 / 1인 / 년, 106.8건 / 1인 / 월, 4.3건 / 1인 / 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39건 / 1인 / 년, 245건 / 1인 / 월 9.8건 / 1인 / 일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지역이 717건 / 1인 / 년, 59.7건 / 1인 / 월, 2.4건 / 1인 / 일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86년도의 전국 평균 서비스 제공수는 1,129건 / 1인 / 년, 94.1건 / 1인 / 월, 3.8건 / 1인 / 일으로써, '85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인천이 2,423건 / 1인 / 년, 201.9건 / 1인 / 월, 8.1건 / 1인 / 일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가 599건 / 1인 / 년, 49.9건 / 1인 / 월, 2.0건 / 1인 / 일으로 가장 적었다 (그림 3-2 참조).

3) 모자 보건 부문: '85년도의 보건 간호 인력 1인당 전국 평균 서비스 제공수는 2,705건 / 년, 225건 / 월, 20건 / 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이 22,645건 / 1인 / 년, 188.7건 / 1인

III. NO. OF PROVIDED SERVICES IN EACH PHPs BY SERVICE & REGIONAL AREA

	T B		FAMILY PLAN			M C H			S.N/ N(Y)	SERVICE PO N(Y) (M)	S.N/ N(Y) (D)	SERVICE PO N(Y) (M)	S.N/ N(Y) (M)	(D)	
	1	9	8	5	M	C	H								
KOREA	106,299	433	245	20.5	0.8	857,511	669	1,282	106.8	4.3	1,512,284	559	2,705	225.4	9.0
SEOUL	20,404	53	385	32.1	1.3	188,638	149	1,292	107.7	4.3	327,713	75	4,370	364.1	14.6
PUSAN	10,198	31	329	27.4	1.1	96,687	55	1,758	146.5	5.9	113,223	5	22,646	1887.1	75.5
DAEGU	4,295	19	226	18.8	0.8	46,721	45	1,038	86.5	3.5	29,830	12	2,486	207.2	8.3
INCHEON	3,300	11	300	25.0	1.0	34,676	15	2,312	192.6	7.7	13,694	4	3,424	285.3	11.4
KWANGJU															
KYUNGGI	9,656	42	230	19.2	0.8	123,456	42	2,939	245.0	9.8	173,823	63	2,759	229.9	9.2
KANGWON	7,126	32	223	18.6	0.7	40,208	35	1,149	95.7	3.8	88,697	51	1,739	144.9	5.8
CHUNGBUK	4,521	20	226	18.8	0.8	25,811	36	717	59.7	2.4	58,273	75	777	64.7	2.6
CHUNGnam	8,419	38	222	18.5	0.7	52,362	55	952	79.3	3.2	141,076	44	3,206	267.2	10.7
JUNBUK	6,566	31	212	17.7	0.7	36,683	41	895	74.6	3.0	55,385	78	710	59.2	2.4
JUNNAM	12,259	61	201	16.7	0.7	60,353	81	745	62.1	2.5	143,489	51	2,814	234.5	9.4
KYUNGBUK	8,979	44	204	17.0	0.7	55,692	55	1,013	84.4	3.4	149,443	49	3,050	254.2	10.2
KYUNGnam	9,404	46	204	17.0	0.7	84,733	53	1,599	133.2	5.3	179,355	40	4,484	373.7	14.9
CHEJU	1,172	5	234	19.5	0.8	11,491	10	1,149	99.8	3.8	38,283	12	5,190	265.9	10.6

	1 9 8 6										M C H				
	T B				FAMILY PLAN				S.E.N/ (M) (D)						
SERVICE	PO	S.N/ N(Y)	(M)	(D)	SERVICE	PO	S.N/ N(Y)	(M)	(D)	SERVICE	PO	S.N/ N(Y)	(M)	(D)	
KOREA	102,306	435	235	19.6	0.8	896,609	794	1,129	94.1	3.8	1,204,994	726	1,660	138.3	5.5
SEOUL	20,803	48	2,131	177.6	7.1	207,249	179	1,158	96.5	3.9	364,751	88	3,940	328.4	13.1
PUSAN	8,722	29	717	59.8	2.4	94,685	63	1,503	125.2	5.0	43,802	5	8,760	730.0	29.2
DAEGU	4,128	22	396	33.0	1.3	46,487	45	1,033	86.1	3.4	25,973	11	2,361	196.8	7.9
INCHEON	3,270	11	375	31.3	1.3	36,339	15	2,423	201.9	8.1	12,963	4	3,241	270.1	10.8
KWANGJU	1,815	10	327	27.3	1.1	16,164	27	599	49.9	2.0	8,267	10	827	68.9	2.8
K YUNGGI	9,382	39	47	3.9	0.2	124,113	55	2,257	188.1	7.5	115,304	88	1,310	109.2	4.4
KANGWON	6,738	32	293	24.4	1.0	38,539	47	820	68.3	2.7	75,930	79	961	80.1	3.2
CHUNGBUK	4,407	20	337	28.1	1.1	27,483	38	723	60.3	2.4	56,202	79	711	59.3	2.4
CHUNGNAM	8,610	38	116	9.7	0.4	57,433	62	926	77.2	3.1	115,962	46	2,521	210.1	8.4
JUNBUK	5,914	32	269	22.4	0.9	39,228	45	872	72.6	2.9	44,360	90	493	41.1	1.6
JUNNAM	9,415	59	100	8.4	0.3	55,137	80	689	57.4	2.3	90,811	90	1,009	84.1	3.4
KYUNGBUK	8,563	43	219	18.2	0.7	59,694	69	865	72.1	2.9	110,018	77	1,429	119.1	4.8
KYUNGNAM	9,294	48	178	14.9	0.6	82,551	63	1,310	109.2	4.4	123,495	47	2,628	219.0	8.8
CHEIU	1,245	4	2,324	193.6	7.7	11,507	6	1,918	159.8	6.4	35,156	12	2,930	244.1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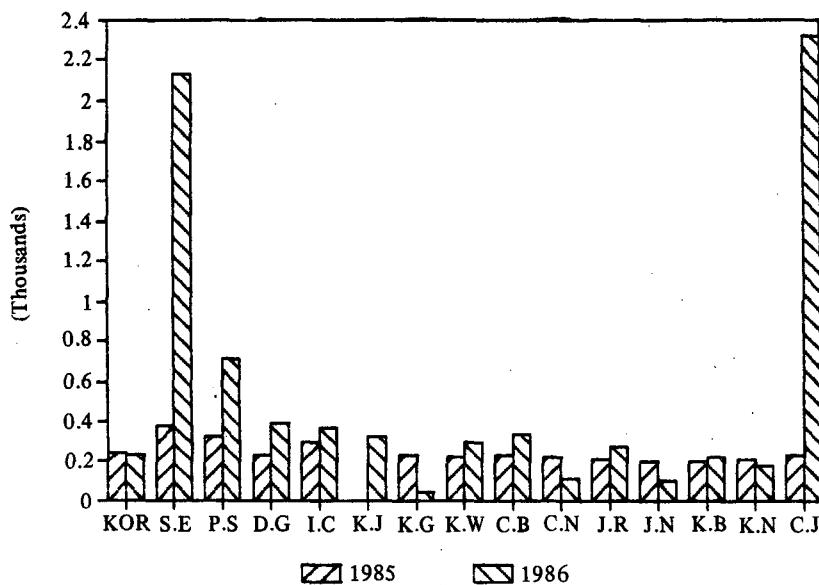


그림 3-1 Yearly No. of provided TB control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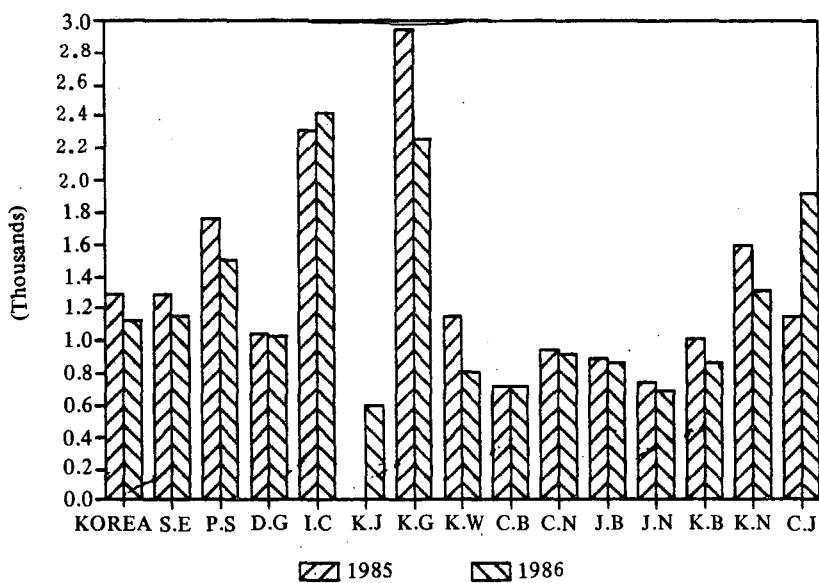


그림 3-2 Yearly No. of provided Family Plan Serv

/ 월, 76 건 / 1인 / 일으로써 가장 많았는데 여타 지역에 비해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86년도의 전국 평균 서비스 제공수는 1,660 건 / 1인 / 년, 138 건 / 1인 / 월, 5.5 건 / 1인 / 일으로써 '85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된 추세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이 8,760 건 / 1인 / 년, 730 건 / 1인 / 년, 29건 / 1인 / 일으로 '85년도에 비해 많은 수가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여타

지역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록상의 오류나 보고상의 오차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한편 '86년도의 지역별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수가 가장 적었던 곳은 전북지역으로 493 건 / 1인 / 년, 41.1 건 / 1인 / 월, 1.6 건 / 1인 / 일 정도였다 (그림 3-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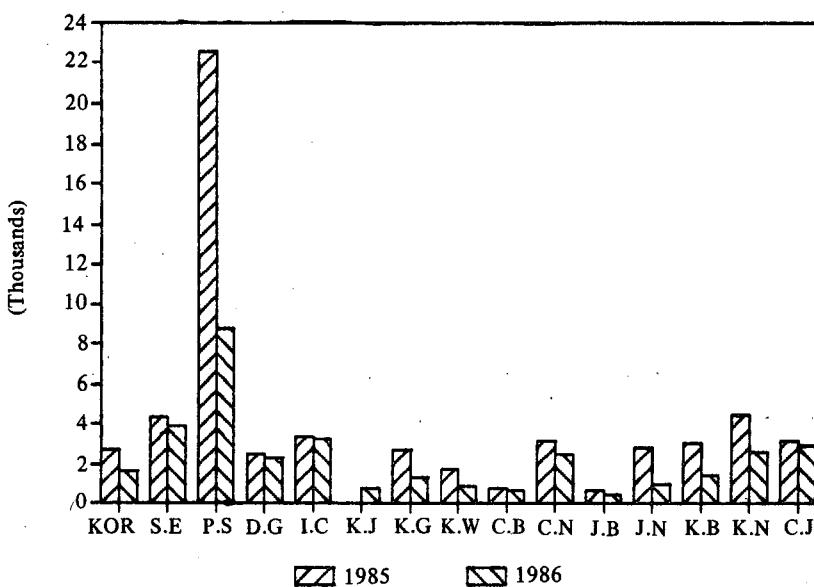


그림 3-3 Yearly No. of provided MCH Services

표 4. The Rate of provided Services for 1,000target populations in each service area

year	T · B			M · C · H			F · P		
	No. of T.P	No. of P.S	rate	No. of T.P	No. of P.S	rate	No. of T.P	No. of P.S	rate
1980	834,332	153,942	185	11,349,348	1,825,240	160.8	5,900,173	572,095	97
1985	804,605	106,299	132	11,272,821	1,512,284	134.2	6,749,171	857,511	127.1

** T.P = Target populations

P.S = Provided services

4.2 보건간호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85년도에 비해 '86년도에는 각 사업 부문별로 다소 서비스 제공수가 감소된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모자 보건 사업의 감소폭이 가장 큰 점은, 모자 보건이 전체 보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으로 보이며, 추후 자세한 원인 분석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각 사업 부문별 서비스 내용의 질적인 검토와 아울러 각 간호 인력간의 업무 규정이 이루어져서 바람직한 보건 간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4. 사업부문별 사업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률

'80년과 '85년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조사 결과 자료를 이용하여 결핵관리, 가족계획, 모자 보건 사업 부문별 대상자수를 파악하고 보건 사회 통계 연보('81년, '86년도)의 각 사업 실적 부분을 이용하여 실제로 제공된 각 서비스 제공 수의 비율을 구하므로써 서비스 제공률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4 참조).

1) 결핵 관리 부문: 결핵 관리 사업 대상자수는 앞의 용어의 정의에서도 밝혔듯이 당해년도의 결핵 유병률을 이용하여 사업 대상자 수를 추계하였는데, 1980년 당시 전인구 결핵 유병률은 2.2%로써 결핵 사업 대상자수는 전인구 유병자수인 834,332명 이었고, 연말 현재 양성, 음성 요관찰자수의 합으로 계산된 서비스 제공수는 153,942명으로써 서비스 제공율은 185 / 대상자 1,000 가 되었다.

한편 1985년도에는 전인구 결핵 유병률이 2.0%로 사업 대상자수가 804,605명 이었고 서비스 제공수는 106,299명으로써 서비스 제공율은 132 / 대상자 1,000 로써 '80년에 비해 많은 감소를 나타냈는데, 이는 결국 결핵 유병률 감소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가족 계획 사업 부문: 1980년도의 가족계획 대상자수는 15~49세의 유배우 가임여성으로 5,900,173명 이었는데, 이는 전체 가임 여성

중 59.8%에 해당되며, 전체 인구 중 15.8%에 해당되었다. 또 서비스 제공수는 연말 현재 가족계획 피임 실천자수로 1,825,240건 이었으며, 서비스 제공율은 97 / 대상자 1,000로 나타났다.

한편 1985년도의 가족계획 대상자수는 6,749,171명으로 전체 가임 여성 중 60.9%에 해당되어, 전체 인구 중 16.7%에 해당되어 '80년에 비해 사업 대상자수가 약간 증가된 양상을 보였으며, 서비스 제공율 또한 127.1 / 대상자 1,000로써 증가 되었다.

3) 모자 보건 사업 부문: 1980년도의 모자 보건 사업 대상자수는 15~49세의 유배우 가임여성과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으로써 11,349,348명 이었는데 이는 전체 인구 중 30.3%에 해당되며, 서비스 제공수는 연말 현재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수로 1,825,240건 이었으며, 서비스 제공율은 160.8 / 대상자 1,000 이었다.

한편 1985년도의 사업 대상자수는 11,272,821명으로 전체 인구의 27.9%에 해당되었는데 이는 '80년에 비해 2.4% 감소된 수이며, 서비스 제공수는 1,512,284건으로 전체 서비스 제공율은 134.2 / 대상자 1,000으로 이 또한 '80년에 비해 감소된 양상을 보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조사 연구는 지역 간호 분과 학회 보건소 연구 team이 보건소 간호인력의 합리적인 수급 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보건 사업 제공 실태를 기존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조사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소 간호 인력의 지역별, 사업부문별 분포 현황

1) '86년말 현재 전국 225개 보건소에 총

3,065 명의 간호인력이 근무중이었으며, 서울에 481 명(15.6 %), 이 배치되어 가장 많았고, 제주도에 41 명(1.3 %)으로 가장 적었다.

사업부문별로는 가족계획부문에 789 명(24 %)이 배치되어 가장 많았고, 나관리 부문에 103 명(3 %)으로 가장 적었다.

이들 인력의 전국적인 충원율은 '86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97 %였으며, 지역별로는 부산, 충북, 전북이 100 % 수준이었고, 경북이 91 %로 가장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

사업부문별로는 나관리, 기타 사업부문이 100 %를 상회했으며, 모자 보건 부문이 93 %로 가장 낮았다.

2) 보건소 간호 인력의 자격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총 3,065 명 중 간호사가 2,199 명, 기타 요원(간호보조원 + 기타 공채 요율)이 866 명으로 간호원 : 기타요원의 비가 약 3 : 1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간호사 : 기타요원의 비가 79 : 1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1 : 1의 비로써 가장 낮았다.

사업 부문별로는 진료 업무 분야가 8 : 1로써 가장 높았고, 나관리 부문이 0.2 : 1의 비로써 가장 낮았다.

2. 보건소 간호 인력의 담당 인구수 및 가구수

'85년 10월 현재 인구 10만명당 간호사의 수가 5 명, 기타 요원은 2 명 풀이었으며, 1만 가구당 간호사의 수는 2 명, 기타요원이 1 명 풀이었다.

지역별로 인구 10만명당 간호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로 7 명이었고, 인천이 2 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인구 10만명당 기타 요원의 수는 충북이 5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0.1 명으로 가장 적었다.

3. 지역별, 사업 부문별 보건 간호 인력 1인당 서비스 제공수

1) '86년말 현재 결핵관리 부문에서는 전국

적으로 보건간호인력 1인당, 연평균 235 건, 월 평균 20 건, 일일 평균 1 건 정도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연평균 2,131 건, 월평균 178 건, 일일평균 7 건 정도로 가장 많았다.

2) '86년말 현재 가족계획 부문에서의 서비스 제공수는 전국적으로 보건 간호 인력 1인당 연평균 1,129 건, 월평균 94 건, 일일평균 4 건 정도였으며, 지역별로는 인천이 연평균 2,423 건, 월평균 202 건, 일일평균 8 건으로 가장 많았다.

3) '86년말 현재 모자 보건 부문에서의 서비스 제공수는 전국적으로 보건 간호 인력 1인당 연평균 1,660 건, 월평균 138 건, 일일평균 6 건 정도였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이 연평균 8,760 건, 월평균 730 건, 일일평균 29 건으로 가장 많았다.

4. 사업부문별 사업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률

1) '85년말 현재 결핵관리 사업부문의 사업 대상자수는 전국적으로 804,605 명 이었고, 서비스 제공수는 106,299 건으로써 서비스 제공율은 약 132 건 / 대상자 1,000 명 이었다.

2) '85년말 현재 가족계획 사업부문의 사업 대상자수는 전국적으로 6,749,171 명이었고, 서비스 제공수는 857,511 건으로써 서비스 제공율은 127 건 / 대상자 1,000 명 이었다.

3) '85년말 현재 모자 보건 사업부문의 사업 대상자수는 11,272,821 명 이었고, 서비스 제공수는 1,512,284 건으로 서비스 제공율은 134 건 / 대상자 1,000 명 이었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1) 추후 보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적정 수의 보건 간호 인력 산출 작업이 필요하다.

2) 보건소 간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들 인력의 자격별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현

1. 김진순: 2000년대의 간호 인력, 대한간호 Vol 24, No 5, 1985, p.12.
2. 송전용외: 농촌지역 보건소 조직 및 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 인구 보건 연구원. 1983.
3. 보사부: 보건 사회 백서, 1985. p.83.
4. 김모임외: 간호 인력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간협신보, 1986. 8. 26 일자.
5. 김진순외: 간호 인력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간협신보, 1986. 9. 6 일자.
6. 양재모: 우리나라 보건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월간 간호, 1981. 4. p.44~47.
7. 송전용외: 보건의료인력 장기수급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6.
8. 이경식: 일차보건의료와 지역사회 간호학,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1977. p.65~69.
9.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통계연보, 제 27 호, 1981년
10.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통계연보, 제 32 호, 1986년
11.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통계연보, 제 33 호, 1987년
1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제 1권 전수조사, 12-1, 1982, p. 32~36.
13.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제 1권 전수조사, 12-2 서울특별시, 1982. p.32~33.
1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제 1권 전수조사 12-3 부산직할시, 1982. p.26~27.
1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제 1권 전수조사, 12-4 경기도, 1982. p.32~33.
16.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제 1권 전수조사, 12-5 강원, 1982. p.28~29.
17.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제 1권 전수조사, 12-6 충북, 1982. p.26~27.
18.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제 1권 전수조사, 12-7 충남, 1982. p.28~29.
19.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제 1권 전수조사, 12-8 전북, 1982. p.28~29.
2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제 1권 전수조사, 12-9 전남, 1982, p.32~33.
2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제 1권 전수조사, 12-10 경북, 1982. p.36~37.
2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제 1권 전수조사, 12-11 경남, 1982. p.32~33.
23.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제 1권 전수조사, 12-12 제주, 1982. p.22~23.
2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속보(2% 표본수출 집계 결과) p.34~39.
25. 13개 시도별 통계연보, 1987년
26. 각 시·도별 “보건소·보건지소·보건 진료소 현황” 보고서, ‘86년 4/4 분기용.